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두 개의 컵라면, 그리고 염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흘렀다. 그리고 침몰한 지 1072일 만에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비극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직 찾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 있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세월호는 영원히 우리 모두의 상처로 남을 것이다.

더불어 내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해당 부처 주무 장관의 자격으로 진도 실내체육관을 찾은 교육부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이 오열하는 현장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심지어 관료의 상징과도 같은 고급 의자에 앉아 편안하고 여유 있게 흡수했다.

하필이면 그 장면이 언론사의 카메라에 잡혔다. 충격과 안타까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국민의 분노는 일제히 '컵라면을 먹는 장관'에게로 쏟아졌다. 아마도 그는 컵라면 하나로 역사상 가장 많은 육을 먹은 사람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다. 일부에서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현장을 비울 수 없는 장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동정 여론도 있었다. 하지만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인간에게 먹는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에 사람들을 이토록 분노하게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2년이 흘러 또 하나의 컵라면이 국민의 감정을 뒤흔들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설비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입사 7개월 밖에 안 된 열아홉 살 청년의 죽음과 그 죽음 뒤에 알려진 사연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유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입사 이후 과도한 업무에 치여 귀가하면 씻지도 못한 채 쫓겨나 버리는 날이 많았고, 끼니를 제 때 챙길 여유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노동을 해서 청년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에 받은 급여는 160만 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이라고 한다. 심지어 그 중 100만 원을 대학 진학을 위해 매달 저축했다고 한다.

사고 현장에 남겨진 청년의 가방에는 각종 작업 도구와 작업 일지 그리고 컵라면 하나가 있었다. 컵라면과 함께 발견된 숟가락과 나무젓가락은 그 컵라면이 청년의 끼니였음을 짐작케 했다. 월급에 포

함된 청년의 한 달 식비는 고작 9만 원. 하지만 그마저도 수시로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처지에서는 밥다운 밥을 먹을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다. 열아홉 살 청년에게 컵라면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었다. 아울러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의 신산한 삶을 대변하고 있었다.

재난의 현장에서 고급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 장관과 지하철역 어느 구석에서 언제 울릴지 모를 호출에 잘 참으며 컵라면을 먹는 청년. 천 원 안팎의 값싼 컵라면이지만 두 사람의 끼니에 담긴 의미는 분명 달랐다.

인간이 먹는 모든 음식은 애초에 생명이 있었다. 남의 생명을 끊음으로써 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다. 그 숙명을 부정하거나 거역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한다. 염치야말로 남의 생명을 빌어 사는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태도다.

염치의 핵심은 때와 장소를 가리는 분별력이다.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컵라면을 먹던 장관은 이 점을 간과했다. 아마도 체육관 밖 어디에선가 초라한 모습으로 끼니를 때웠다면, 그리고 그 장면이 어느 기자의 카메라에 잡혔더라면, 장관을 향

한 대중의 시선은 사투 달랐을 것이다. 청년에게는 때와 장소를 가릴 선택권이 없었다. 선택권이 있는 자의 무분별함과 선택권이 없는 자의 무기력함.

맛은 주관적이지만 먹는다'는 행위는 사회적이다. 때문에 먹는다'는 행위에는 사회적인 통념이 적용된다. 장관의 컵라면에는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청년의 컵라면에는 사회의 책임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래서 대중은 장관의 컵라면에는 분노했고 청년의 컵라면에는 아파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과 만나 관계를 맺다 보면, 파문이 인다. 파문이 일면 물결이 퍼진다. 물결은 때로 사람을 성장시키고 때로는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인간은 그렇게 물결을 만나며 성장하거나 혹은 무심하게 혹은 악착같이 살아간다.

음식은 물결 사이사이에 있다. 더러는 육신의 허기를 채워 주는 목적이 되기도 하고 더러는 육망을 채워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음식은 물결 사이에 놓여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음식을 대하는 인간의 최소한의 염치다.

(맛칼럼니스트)

社說

후보 확정 사실상 막 오른 장미대선 레이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하루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당 대선 후보가 됐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야권의 대표 주자 자리를 놓고 자유를 거뒀던 두 사람이 5년 만에 다시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다만 이번은 예선이 아니라 본선무대에서 리턴매치를 펼치게 된다.

특기할 만한 것은 요즘 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 후보의 대세론은 확고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안 후보가 무섭게 따라잡고 있는 양상이다.

19대 대선에 나설 5개 정당의 후보가 모두 확정된 가운데 안 후보는 5자 구도에서 처음으로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4월 첫 주 JTBC가 한국리서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39.1%로 1위, 안 전 대표가

31.8%로 2위를 차지한 것이다. 호남에서는 문 전 대표 45.1%, 안 전 대표 39.4%였다. 특히 TK(대구경북)에선 안 전 대표가 38.2%로 문 전 대표(26.7%)를 앞섰다. 보수층이 안 전 대표를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안 후보와 문 후보 모두 이번 승부에서 패배한다면 자신의 정치인생에서 치명타를 받게 되는 만큼 이번 대결은 그야말로 '끝장 승부'가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호남의 중요성이 어느 선거 때보다 부각됐던 만큼 본선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뒷발 표심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의 선택이 운명을 가를 가능성이 많다. 중요한 것은 호남에 대해 어떻게 진정성을 보여 주느냐 하는 점이다.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호남은 다른 응답을 할 것이다.

전남 지역 경제단체도 대선공약 한목소리

원내 5당의 대통령 후보가 모두 확정된 가운데 전남 지역 경제단체들이 제 19대 대선 핵심 6대 공약을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키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핵심 공약에는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 국제선도지구 지정, 광양만권 동북아 LNG 허브 구축 등 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목포상공회의소, 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 전남경영자총협회 등 8개 전남 지역 경제단체들은 최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각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들은 전남 서부지역에 해양수산 융·복합단지 조성,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 국제선도지구 조성, 해경 제2정비장 유치를 통한 수리조선 특화산업 조성, 동부지역에 광양만권 동북아 LNG 허브 구축, 여수 경도 복합해양관광 중심지대 육성, 대한민국 조경량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을 각각 대선 공약으로 제

시했다. '대한민국 조경량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은 경량 소재 복합연구센터 조성 등을, '광양만권 LNG 허브 구축'은 동북아 LNG 무역 허브 터미널 조성, LNG 공급선 다원화 및 선박산업 육성 등을 각각 담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목포시 일원의 서남권역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개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반영해 '서남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산업기반 등으로 점점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천혜의 자원과 성장 잠재력 등 지역의 고유한 강점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전남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 대선 주자들은 경제단체들이 제안한 6대 공약들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도민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 주었으면 한다.

삶과 교육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정선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

지, 아니면 섬세하게 하나하나 보살피 주어야 할지, 독립적으로 혼자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지도 결정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자녀교육이 갈수록 더 어려운 지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말이나 훈계가 아니라 부모의 행동이라는 점이다. 자식은 대체로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며 그대로 따라 한다. 이 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조유의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비극의 역사에서도 잘 보고 있지 않은가? 그는 독재자의 가정에서 자라며 독재정치를 배웠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교만으로 채워진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국민 대다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었다. 물론 독재를 의도적으로 직접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도 잘못 배운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깨닫게 된다.

그런 점에서 자녀교육에 있어서 소위 잠재적 교육과정인 명시적 교육과정보다 더 중요하다. 부모가 무언중에 하는 말이 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자녀는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기 때문이다. 그렇진대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하면 자식은 어디선가 그대로 따라 할 것이다. 부모의 귀감이 되는 행동은 학력을 포함한 교육수준이나 인

격의 수양 정도, 그리고 자quez을 포함한 소위 인간자본 등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에 달려 있다.

자녀의 배움에 있어서 부모-자녀간 관계 혹은 유대감이 중요하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부모의 기대와 바람이 자식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는 자식과 어머니나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자식간 계속해서 미주알고주알 긴밀하게 고민을 같이 나누고 소통하는 자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그대로 자녀의 행동이나 성취동기로 환원된다. 그러나 대화나 소통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녀에게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높은 기대를 갖는 것은 심한 간섭이 되어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한다. 부모-자녀를 잇고 있는 통로가 얼마나 막힘없이 소통되고 있는지가 부모의 기대가 통기가 되느냐 아니면 자녀를 불편하게 하느냐를 결정한다.

과하게 잘해 주는 것, 즉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용돈을 많이 주고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어야 자녀가 성공한 사람이 되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새벽같이 노동일을 나가는 가난한 아버지의 굶은 등을 보면서, 통명하게 갈라진 부모님의 손발

을 보면서 자라는 자녀도 성공을 위한 성취동기를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 잔소리 대신 정화하는 떠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비뚤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문제는 부모 자신이 얼마나 올바르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느냐, 즉 삶의 진정성과 이해의 역사성, 그리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전달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부모는 장난으로라도 자식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한비자의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이다. 결국 부모와 자식은 서로 비추는 거울과 같다. 자식의 잘못된 행동은 곧 부모의 잘못된 행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다면 자식은 그것을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훈육보다 모범이 낫다'는 영국 속담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의 칼럼 '삶과 교육'이 신선했습니다. 이 총장은 교육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전공과 취업방향이 바뀐다



이왕무 동강대 토지정보관리과 교수

그 시기 및 속도를 가능하기 어려우나,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 등장과 기술적 혁신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생활편의성,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서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일자리 지역적, 일자리 증감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자동차 기술 및 컴퓨터 연산기술의 향상 등은 단순·반복적인 사무행정직이나 저숙련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에 직접 영향을 미쳐 고용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직근 및 산업분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고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 일자리 보고서'에서 전망한 전공별 기술대체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공지능, 로봇 등 스마트 기술에 의해 직업 대체효과를 가장 심하게 겪는 대학전공은 의학(51.7%), 교육(48%), 예체능(46.1%), 사회(44.7%), 공학(42.5%), 자연(41.1%), 인문(40.2%)분야 순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발전 및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 인력에 요구되는 역량의 변화 정도, 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역량의 유통기한의 변화 정도에도 영향을 미쳐 복합문제 해결능력(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 및 인지능력(cognitive ability)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향후, 직업이나 대학(전공)을 선택하고자 할 때 참고해야 할 부분으로 미래지향적인 판단의 준거가 될 것이다.

스위스 UBS(Union Bank of Switzerland) 은행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4차산업 혁명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나라 25위로 평가됐다. 반면, 노동시장 유연성은 139개국 중 83위로 평가된 바 있어 우리정부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및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교육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직업세계의 불확실한 변화의 파고를 넘어 대응하기 위해서는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생명공학, 감성인식 등의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대학(전공) 선택을 1차적인 전략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차별화와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자신이 선택한 전공분야와 직업군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습득(Upskilling) 및 역량개발(Reskilling)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최근 대학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융합교육,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강화되고 있다. 동강대학교(토지정보관리과)에서는 GPS, 드론(Dron) 등을 활용하여 공간데이터를 취득하고 GIS 기반으로 분석하거나, 3차원지도 제작을 통한 가상현실 구축 등 3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력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미래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충실해 대응하고 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창의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라는 점을 주시하고, 가속화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자(a Wise Man)가 되길 바란다.

無等鼓

"3번 문고본과 카페라떼 주세요." 커피숍에서 이런 주문이 가능할까. 맥주 마시는 서점으로 유명한 일본 'B&B' 대표 우치누마 신타로(그의 강연 내용은 책 '탐방서점'에 실려 있다)은 책과 서점 관련 프로젝트 기획자로 이름이 높다. 언젠가 '카페 안 책장'을 의뢰받은 그는 메뉴에 책 다섯 권을 넣은 '문고본 세트'를 기획했다. 카페를 찾는 이들이 메뉴에 있는 것만 주문한다는 사실에 착안, 책과 음료를 한 세트

로 만든 것이다. 'She hates books /Her best friend' 라는 제목도 모르고 산 책

다. 이들 세 곳은 충성 고객이 존재하는 출판사다. 장르소설 마니아라면 미야베 미서점 덕분에 변화가 적힌 수많은 사진이 붙어 있다. 책장에는 '도쿄에 사는 사람이 고른 책이 800엔'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의 번호를 단 책이 놓여 있다. 책 내용을 모른 채 사진을 보고 "나랑 마음이 맞을 것 같은 이 사람이 권하는 책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책을 구입하는 것이다. 친구가 책을 추천하는 방식을 가기에 도입한 기획이었다.

지난해 일본 사와야 서점이 진행한 '문고X' 프로젝트도 화제를 모았다. 제목도 저자 이름도 알리지 않고 책을 판

다. 이들 세 곳은 충성 고객이 존재하는 출판사다. 장르소설 마니아라면 미야베 미서점 덕분에 변화가 적힌 수많은 사진이 붙어 있다. 책장에는 '도쿄에 사는 사람이 고른 책이 800엔'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의 번호를 단 책이 놓여 있다. 책 내용을 모른 채 사진을 보고 "나랑 마음이 맞을 것 같은 이 사람이 권하는 책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책을 구입하는 것이다. 친구가 책을 추천하는 방식을 가기에 도입한 기획이었다.

지난해 일본 사와야 서점이 진행한 '문고X' 프로젝트도 화제를 모았다. 제목도 저자 이름도 알리지 않고 책을 판

다. 이들 세 곳은 충성 고객이 존재하는 출판사다. 장르소설 마니아라면 미야베 미서점 덕분에 변화가 적힌 수많은 사진이 붙어 있다. 책장에는 '도쿄에 사는 사람이 고른 책이 800엔'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의 번호를 단 책이 놓여 있다. 책 내용을 모른 채 사진을 보고 "나랑 마음이 맞을 것 같은 이 사람이 권하는 책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책을 구입하는 것이다. 친구가 책을 추천하는 방식을 가기에 도입한 기획이었다.

지난해 일본 사와야 서점이 진행한 '문고X' 프로젝트도 화제를 모았다. 제목도 저자 이름도 알리지 않고 책을 판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회 2부 220-0652	사진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